

### 충북도, 불교 성지 관광코스 개발한다

#### 6월 1일 불교전문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진행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충북지역 불교 성지를 활용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충청북도청은 6월 1일 불교전문여행사 관계자 10명을 초청해 1박2일 일정으로 도내 대표 사찰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들은 2일까지 보은 범주사와 영동 반야사, 충주 석종사, 단양 구인사 등 템플스테이 사찰 4곳과 주변 관광지인 영동 컨츄리리조트와 단양 다누리센터 등을 둘러봤다. 충청북도는 2015년 말까지 여행사를 초청한 성지순례 코스 팸투어를 추진하고

과가 기대된다. 충청북도는 성지 순례와 도내 주요 관광지, 먹거리 등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충청북도는 2014년 가톨릭 성지순례 코스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지난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음성 꽃동네 방문을 계기로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이 결과 지난해 가을 관광주간에 2만 1000여명이 교황 방문지인 음성 꽃동네와 음성 감곡 매곡성당, 진천 배터성지, 괴산 연풍성지, 제천 배론성지를 찾았다.

또 이 상품은 필리핀 톱 배우인 제시 멘다올라가 출연한 필리핀 민영방송 ABS-CBN에도 실리기도 했다. 이에 155명의 필리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고, 외국인 744명이 패키지 관광상품을 활용해 가톨릭 성지를 둘러봤다.

이인수 관광항공과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종교인이다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양한 종교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에 성지순례가 인기”라며 “성지순례 관광코스 개발과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앞서 천주교 순례 상품 성공해 보은 범주사-구인사 등 연결코스

종교방송·신문 등 매체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보은 범주사와 영동 반야사, 충주 석종사, 단양 구인사다. 모두 템플스테이 사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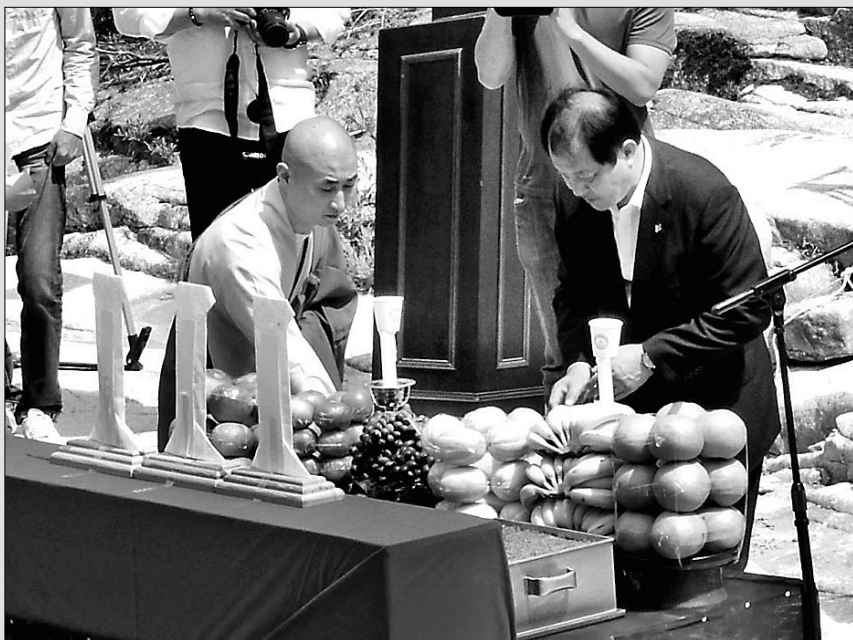
충청북도 내에는 우리나라 3대 약성 중 1명인 난계 박연(朴堧·1378~1458)의 고향인 영동의 국약체합촌, 국내 최대의 민물고기 수족관인 단양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등의 문화요소가 많아 시너지 효

### 서산 부석사 '공양청' 사찰음식 대잔치

서산 부석사가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사찰음식 대잔치를 열어 화제다.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5월 30일 사찰 경내에서 서산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제3회 행복한 서산 향기로운 부석사 사찰음식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음식잔치에서

는 세계 각 나라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경연대회를 열고 시식을 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연대회에는 중국과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전통음식이 만들어졌으며 중국의 탕수완자 요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노덕현 기자**

### 월정사 “부처님의 가피로 단비를”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6월 9일 월정사 금강연에서 '우순풍조·민생치안·월정사 기우제'를 개최했다.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자 종교계에서도 가뭄 극복을 염원하는 '기우제(祈雨祭)'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6월 9일 오후 월정사 금강연에서 '우순풍조·민생치안·월정사 기우제'를 봉행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심재국 평창군수, 유인환 평창군의장을 비롯한 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독송과 헌화·헌다, 봉행사, 발원문 낭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념 스님은 봉행사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메르스 전파 등은 우리의 발원한 환경의식에 대한 공업(共

業)의 인과”라며 “오늘 기우제의 간절한 발원으로 모든 대중의 우환과 고통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종교계도 가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역 종교가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강원종교평화협의회(대표회장 신관우 목사)는 6월 11일 월정사에서 제16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종교인들은 결의문에서 “강원종교평화협의회는 극심한 가뭄해갈을 위해 노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물을 아껴 쓰고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과 자연재해, 환경문제 대처 등에 솔선수범하겠다”고 결의했다. **신성민 기자 moip79@hyunbul.com**

### 전북 불교계, 메르스로 종교활동 난항

전북 순창, 김제에 이어 10일 전주에서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북지역의 불교계에도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11일 현재 전북지역에는 3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해 총 734명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중 병원격리자 9명, 자가격리자 633명, 능동감시관리자 92명으로 전북 전지역에서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확진환자 발생한 순창 장덕마을에 위치한 장덕사(주지 청암)는 최근 종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마을 전체가 출입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사

찰 운영 자체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와 함께 11일 예정됐던 선운사 선운골 어울림 한마당도 같은 이유로 취소됐다. 또 21일로 예정됐던 외국인 노동자 체육대회도 가을로 연기됐다.

이밖에 송광사의 금산고등학교 템플스테이가 취소되는 등 전북 지역의 템플스테이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3일 금산사와 선운사가 공동주최하기로 예정됐던 전북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주최측은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과 장년층의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 불교계, 네팔 지진 피해 돕기 나선다

광주 불교계가 네팔 지진 피해지역을 위한 돕기에 나섰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혜봉)는 6월 10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부터 모금한 6000여 만원을 네팔지진 피해민을 위한 지원을 진행한다.

광주지역 사찰, 불교단체, 광주전남불교NGO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모금행사는 광주지역 처음으로 단일창구를 이용한 공동모금으로 진행됐다.

혜공 스님은 이번 지원에 대해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인들을 위해 광주지역 많은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주었다”며 “작은 힘이나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소중한 복전이 되었으면 한

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지원에 대해 문영배 기획팀장은 “네팔의 현지상황에 맞게 긴급구조의 상황이 마무리 되고 2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지정기탁은 일부단체에서 기부한 금액을 아름다운동행, 지구촌생생, 더 프라미스, 네팔 고아원 등에 전달되며, 직접 지원은 광주지역 불교외국인단체와 공동으로 6월 말에 네팔 고르카와 신두발족지역을 방문해 피해가구에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한다.

특히 이 두 지역은 광주에 근무하는 일부 네팔인들의 고향으로 이번 지진을 통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실크로드 통해 한국 전래 문화 이해”

아시아의 불교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강연회가 개최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6월 10일 ‘실크로드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민병훈 전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특별강연은 광주박물관에서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인 ‘아시아의 불교미술-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강연이다.

민병훈 부장은 이날 “중국어 중심의 고대 문화가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문화교류의 보편적 흐름을 이해하고, 특히 경주를 포함한 한국의 문화의 중심지역에 전래된 문화를 이해해야 고대의 문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생명·평화 모내기 체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 4기 30여 명이 6월 6일 지도교사들과 함께 생명·평화 모내기 체험을 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지역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명평화와 사랑의 실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주시 외곽지역에서 진행됐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4기 단원들은 이날 힘든 노동과 생명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하고 새참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모를 심었다.

체험행사에 참여한 실천단원들은 모심기 체험 후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하지를 배웠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미(이리여고 1학년) 학생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체험에 눈에 별레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고 망설였는데 처음에만 불편하고 나중에는 모심기에 열중하게 되었다”며 “실천단 모심기를 통해 생명평화를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엄태호(전북제일고 1학년) 학생은 “체험활동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눈 400평을 다 손으로 모심는 걸 보고 기가 없던 시절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며 “쌀 한 톨도 아까워하고 농부들의 수고와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천단원들은 모심기를 끝내고 모악산 금산사를 찾아 캠퍼스에서 식사 후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이 심은 모는 가을 벼베기 체험을 거쳐 시민단체를 통해 연말 불우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단원들이 6월 6일 모내기를 하고 있다.

###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쑥양초 선물세트 6p**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잠내세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 지름 6cm

**밀납양초 선물세트 6p**

지리산 도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 지름 6c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림) 8cm]

불교인이려면 누구나 기giban

나만의 향신세계 기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기giban

성불할때까지 향상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기giban

기giban 원산 선영과 한남 강원관 나와의 만남입니다

www.hyunbulshop.com